

4월 17일



이른 아침---



미하일 소령 : ---오늘부터의 기갑병 교련은 제2분교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미하일 소령 : 합동교련을 수행할 전술과와 특무과, 백업을 담당하는 주계과 등등을
만전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싶다.

미하일 소령 : 주말의<특별연습>에 대비해서 말이지.

린 : ... 알겠습니다.

란돌프 : 뭐, 솔직히 1일 남짓으로 어느 정도까지

몸에 배이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토와 : 하지만, 학생들이 확실히 익힐 수 있도록 가능한의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미하일 소령 : 잘 부탁드립니다.

미하일 소령 : 공장 준비에 착수하도록 하지-- 라고 말하고 싶지만.

미하일 소령 : 그 전에 슈바르쳐- 확인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린 : 저, 말입니까?

미하일 소령 : 그래, 오늘 아침 운송회사에서 문의가 있어서 말야.

미하일 소령 : 어제, 리브스에 배달하던 때 어느 검은 머리의 청년에게
업무에 있어서 도움을 받았다고 하던데.

미하일 소령 : 그 유명한 <젯빛 기사>에게 어딘가 모르게 매우 닮았다고 하던데...?

린 : 아아, 그 때의...

린 : 아무래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저기, 뭔가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미하일 소령 : ... 역시 너였구나.

미하일 소령 : 마을의 주민에게서도 비슷한 연락이 들어와 있는데...

토와 : 아하하... 린 답다랄까.

토와 : 학원생 시절도 학생회가 받은 잡무를 몇 번인가 도와주었었지.

린 : 하하, 그렇네요.

란돌프 : 헤에, 그런 일을.

란돌프 : ...하하, 나도 약간 그리워지는 걸.

린 : 에...?

미하일 소령 : 크흠, 책망할 생각은 아니지만 조금은 입장을 생각해보는 게 어떤가?

미하일 소령 : 군사학교인 사관학원의 교관,
그것도 <젯빛 기사>가 하찮은 잡무를 하다니--

목소리 : 안, 실로 멋진 행동이야.

린 : 분교장님...?

미하일 소령 : 무, 무슨 말씀이시죠?



오렐리아 분교장 : ㅋㅋ 다시 말해 슈바르쳐는 자신 스스로 체현하고 있는 거야.

오렐리아 분교장 : “세상의 초석이 되라”---그 사자심황제의 말을 말이지.

린 : 아, 아니. 그런 대단한 이야기가 아닌...

오렐리아 분교장 : 그럼 영광 있는 톨즈 제2분교로서는
확실히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예의겠지.

오렐리아 분교장 : 오로지 병아리들의 이후 성장을 위해서도--

오렐리아 분교장 : 마을 주민들과의 “중계역”이 되어주기 위해서도 말야.
 린 : 에?
 토와 : 그, 그건...
 미하일 소령 : ---과연, 제2분교의 설립은 꽤나 급작스러웠다고 들었습니다.
 미하일 소령 : 그런 의미에선 주민과의 마찰회피는
 이후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렐리아 분교장 : 음, 분교장으로서는 “다음”의 수순의 준비는 직접 말도록 하지.
 오렐리아 분교장 : 너희들은 오늘의 기갑병 훈련과 다가올 특별연습에 준비를 하도록 해라.
 란돌프 : 하하, 왠지 쓸데없는 일을 떠맡아버린 느낌이군?
 토와 : 꽤, 괜찮겠어, 린?
 린 : 하하... 뭐, 될 대로 되겠지요.
 린 : 아무튼 지금은 분교장님의 말씀대로 기갑병교련에 집중해야할 테죠.
 미하일 소령 : ...그 말대로군. 뭐 됐어. 이 건에 관해서는
 자네와 분교장님의 판단에 맡기지.
 미하일 소령 : 그럼 각자 준비를 진행하도록--- 해산!!

자유행동일의 시작 전에 의뢰(퀘스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이후에는 숨겨진 것 이외에는
 처음부터 의뢰내용과 장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행동의 지침으로서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그 후, 린 일행은 시급히 준비를 진행하여...
 마침내 분교에서는 처음이 되는 기갑병교련이 시작되었다.

슈밋트 박사 : 흠, 어떻게든 시간에는 맞추었군.
 슈밋트 박사 : 교련중 시간은 말기마. 학생들을 써서 걱정하게 대응하도록 해라.
 티타 : 아, 네...!
 란돌프 : 여전히 얼토당토 없는 할아범이로구만...
 란돌프 : 그 말에 따라가는 저 아이도 대단한 것 같은데.
 린 : 네, 리벨 최고의 기술자 집안의 출신이라는 것 같아요.
 린 : 그건 그렇고 역시나 일손의 부족은 절실하네요...

란돌프 : 거기다가 제대로 훈련도 하지 못하고 주말에는 현지로 출발이니까 말야.



란돌프 : 가능하다면 기본조정만이 아니라 모의전 정도는 할 수 없을까?

린 : ...네, 리스크는 있겠지만 감이 좋은 아이들이라면 따라올 수가 있을 테죠.

린 : 학생의 수는 분담하기로 하고... 란돌프 교관님은 <핵틀>로 괜찮으신가요?

란돌프 : 응, 약간 다루기 어렵지만 파워가 있어서 내 취향의 기체야.

란돌프 : 너는 <재의 기신>이 아니라 <드랏켄>으로 가르친다고 했지?

란돌프 : 게다가 태도가 아니라 기갑병용 검을 쓴다고?

린 : 네, 아무래도 발리마르로는 견본이 되기는 힘들 테니까요.

린 : 기사검술은 아버지께 배웠으니 어떻게든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란돌프 : 하하, 그 쪽은 말기도록 하지.

란돌프 : 남은 것은 학생들의 준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인데...



란돌프 : 그리고 보니, 슈바르쳐. 라디오 같은 거 듣거나 하나?
 린 : 아, 네... 뭐, 남들 정도는요.
 란돌프 : 아니, 크로스벨에서도 작년부터 라디오 방송이 시작해서 꽤 들었거든.
 란돌프 : 시사방송이라는 것은 재미없지만 트리스타 방송이라는 것은 꽤 좋아해서 말야.
 란돌프 : 그런데 어제의 신(新)방송! 이야~, 진행역의 미스티씨는
 완전 취향의 목소리와 토크 진행을 한단 말이지!
 란돌프 : 아무래도 한동안 쉬었다가 복귀하는 거라면서?
 린 : 네... 뭐, 여러모로 사정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린 : (실제 사정을 알면 아무래도 정말 놀라겠지...)

본교사 그라운드 훈련장.

2~4시간 기갑병교련.

린 : 시드니, 상체가 너무 흔들려!
 린 : 조금 약간 허리를 낮추고 앞으로 미끄러지듯이 전진하도록 해.
 시드니 : 하아, 하아... 무리한 소릴 하지 마세요~!?
 란돌프 : 역시 대단한 걸, 제시카. 그대로 선회해서 뒤로 물러나도록 해.
 제시카 : 네...!



유우나 : 하아, 정말로 기갑병에 타게 될 줄이야...
 유우나 : 크로스벨의 사람들에게 면목이 없다랄까...
 알티나 : 그런 것치고 능숙하게 기본조정을 클리어한 모양입니다만.
 크루트 : 응, 나보다 더 빨리 익숙해졌을 정도니까.
 크루트 : 타본 경험은 없었잖아?
 유우나 : 응, 하지만 경찰학교에서 도력차의 운전을 했었으니까.
 유우나 : 한번 잡았더니 스무스하게 움직였다랄까...
 크루트 : 운전감각의 연장인가... 타고난 감일지도 모르겠군.
 알티나 : 저는 약간 실패했기 때문에 솔직히 부러울 정도예요.
 알티나 : 아무래도 크라우=솔라스와 비교를 해버리는 모양으로...
 유우나 : 헤에, 그런 거야?
 유우나 : ---가 아니라! 익숙해지고 싶진 않다니까!!

란돌프 : 좋아---조금 이르지만 간단한 모의전을 하도록 한다!
 린 : 지금부터 나와 란돌프 교관님이 교차로 너희들 2명과 전투를 할 거야.
 린 : 호명된 자는 앞으로 나오도록 해. 우선은 유우나, 크루트!

유우나 : 옛, 갑자기!?
 크루트 : ... 모처럼의 기회야. 어디 한번 확인해볼까.
 알티나 : 두 사람 모두, 파이팅입니다.
 애쉬 : 해에...?
 유제 : 후훗...



린 : 두 사람 모두 기본조종은 익혔으니까 모의전도 어떻게든 치를 수 있을 테지.
 린 : 수지(樹脂)제의 연습용 무기이니까 어느 정도 무리를 해도 상관없어.
 린 : 맨몸에서의 실전감각을 활용해서 있는 힘껏 덤벼보도록 해.
 유우나 : 흥이다... 그거 아주 고마운 말씀이네요.
 크루트 : 2대 1... 기신은커녕 태도도 쓰지 않다니 역시 여유가 넘치시네요.
 린 : 아쉽게도 기갑병용 태도는 발주되어 있지 않아서 말야.
 린 : 말해두지만 나는 작년 톨즈 본교의 기갑병교련에서 질리도록 타서 익숙해.
 린 : 너희들 두 사람 정도의 상대라면 솔직히 말해서 여유일 테지.
 유우나 : 크으... 말했겠다!?
 크루트 : ... 그럼 마음껏 상대를 해드리지요!
 린 : 후후... ---자 그럼, 정정당당히 승부다!!

~ 기신 기갑병 전투에 대해서 ~

기신, 기갑병 전투는 [헤드(ヘッド)], [보디(ボディ)], [암(アーム)]의 3부분의 어느 1곳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부위는 서로 다른 [무너짐 판정(崩し有効度)]을 가지고 있으며 ★이 많을수록 [무너짐(崩し)]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너짐]이 발생하면 추가 공격을 할 수가 있으며 BP가 1 상승합니다.
 BP를 2모으고 적을 무너뜨리면 강력한 필살기를 사용할 수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노리도록 합시다.

[무너짐 판정]은 적의 자세에 따라서 바뀌므로 적의 자세를 간파하여 공격해주시요.

~[적의 타겟]과 [방어]에 관해서 ~

적이 공격하려고 하는 대상에는 타겟 라인이 표시됩니다.
타겟 라인은 L2를 누르는 것으로 커맨드 선택 시에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적의 크래프트는 데미지가 크므로 방어를 잘 사용하여 버티도록 합니다.



Event Battle!!

드랏켄2-린 교관(ドラッケンII (リン教官))

HP 33000 / BP 33000



통상시엔 몸체(ボディ), 칼을 들고 방패를 내미는 자세시엔 헤드(ヘッド)가 무너짐 판정이 가장 좋으니 자세를 확인하고 해당 약점을 노리자.

크래프트를 시동할 경우엔 이쪽도 크래프트로 해제를 노리거나 방어로 데미지를 줄이도록 하자. 추가공격만 유효하게 반복되면 빠른 필살기 게이지로 어렵지 않게 쓰러뜨리는 것이 가능하다.

유우나 : 이, 이겼다...!

크루트 : 아니---...(뿌덕)

린 : ...좋은 느낌이군. 지금의 감각을 기억해둬.

구스타프 : 여유인가...

마야 : 흠, 역시 대단하군요.

란돌프 : 좋아, 다음은 웨인이랑 레오노라다.

란돌프 : 두 사람이 내린 뒤에 탑승. 무기를 집어 들고 앞으로 향해라.

웨인 : 예, 예스 씨-

레오노라 : 하하, 교관님하곤 한번 겨뤄보고 싶었던 말이지.

알티나 : 두 사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유우나 : 크, 분해~~~~…!



유우나 : 도중부터 힘을 빼고 있다는 건 알아줬는데…!!
크루트 : 여기는 첫 탑승이야. 신경 쓸 필요는 없어.
크루트 : (...힘을 뺐다고는 해도 역시 납득이 가질 않는 걸...)
크루트 : (어딘가 굼뜨다고 할까 무르다고나 할까...)



웨이 : 저, 졌습니다…!
레오노라 : 역시 대단하네…! 그걸 피하다니!
란돌프 : 나 참, 처음 전투에서 갑자기 그런 기술을 완벽하게 구사하지 말라고.

린 : 다음은 그렇군... 애쉬랑 제시카, 할 수 있겠어?
 제시카 : 네...! 바라던 바---
 애쉬 : 헛, 사양이야.
 린 : ...
 란돌프 : 어이, 애쉬...
 제시카 : 잠깐, 너 대체 무슨 속셈...!?
 애쉬 : 아아, 너랑 같이 싸우는 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애쉬 : 모처럼 모의전을 하는 거면
 재미있는 취향 쪽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야.



애쉬 : ---란돌프 교관님. 핵톨을 빌려주지 않겠어?
 애쉬 : 어차피 할 거면 1 대 1로 슈바르쳐 교관님의
 상대를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말야.
 란돌프 : 그건...
 린 : ---괜찮아. 그 조건으로 해볼까.
 애쉬 : 헛...!
 란돌프 : ...어이, 괜찮은 거야?
 린 : ...네, 주제넘은 짓이라고 생각지 않으신다면 말이죠.
 린 : 모처럼 의욕을 보이고 있으니 찬물을 끼얹는 것도 뭐하니까요.
 란돌프 : 의욕이라... 뭐 좋아, 모쪼록 콧대를 납작하게 해 달라고?
 유우나 : 대체 뭐야, 저 녀석...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시건방진 거 아니!?
 알티나 : 유우나씨는 남에게 뭐라 할 입장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유우나 : 으음...
 크루트 : ...
 애쉬 : 크크, 감사인사를 하지. 슈바르쳐 교관나리.
 애쉬 : 머처럼이니 영웅님의 대단함을 직접 맛보고 싶어서 말야.
 린 : 그다지 상관없지만... 갑자기 핵톨로 괜찮겠어?
 린 : 파워가 있는 만큼 다루기는 어려우니까 초심자에게엔 난이도가 높은데?
 애쉬 : 아아, 그런 모양이더군.
 애쉬 : 하지만---이 녀석을 사용하기엔 조금 파워가 필요해서 말야...!!
 유우나 : 뭐...!?
 알티나 : 그 거리에선---
 크루트 : 아니...!!

란돌프 : 기습용 기믹이라고...!?



애쉬 : 잘도 피했군...! 하지만 선수(先手)는 이쪽이야!



Event Battle!!

헥틀 2형 - 애쉬 (ヘクトル式型 (アッシュ))
HP 41000 / BP 34850



통상시에선 헤드(헤드) 팔을 들어 도끼를 위로 뺄 때는 팔(아름)이 무너짐 판정이 좋으니 자세를 확인하고 알맞은 부위를 노리자. BP 포인트가 낮아 무너짐 판정 위주로 노린 후 필살기를 구사하면 빠르게 브레이크 상태로 만들고 확실하게 해치울 수 있다.

유우나 : 아하~...어떻게든 물리쳤나.
유우나 : 것보다 처음의 그거, 아무리 그래도 너무 치사한 거 아냐!?
알티나 : 분명 개시의 신호 전의 공격이기도 했고요.



크루트 : 응... 무를 존중하는 제국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방식이군.
크루트 : (하지만, 그 순발력과 허를 찌르는 기습은...)
애쉬 : 첫...실패했다.
란돌프 : 어이, 애쉬 카바이드!!
란돌프 : 개시 전의 기습은 제쳐두고 그 기믹은 뭐야!?



란돌프 : 어제 추가로 도착한 장비인데... 어째서 그런 장치를 알고 있지!?
애쉬 : 우연이에요, 우연. 휘둘렀더니 운 좋게 나간 거뿐이라구요

애쉬 : 슈바르체 교관님. 상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쉬 : 또 기회가 있다면 잘 부탁드립니다.
 린 : 그래, 언제든지 괜찮아.
 린 : 덧붙여 말하면 선수(先手)를 잡은 후 러쉬는 조금 조잡한 거 아냐?
 린 : 일격, 일격을 정확하게 구사했으면 다음 공격으로도 쉽게 이어질 수가 있었을 테지.
 애쉬 : ... 켓...
 란돌프 : 어이, 야! 애쉬...!!
 란돌프 : ... 나 참, 미안하군.
 란돌프 : 어딘가 위험한 녀석이라고는 생각하긴 했지만.
 린 : 하하...꽤나 문제아인 모양이네요.
 린 : 하지만 그 천부적인 재능-- 단련하면 상당히 강해질 것 같아요.
 란돌프 : 그래, 그건 동감이야.

- 그 후, 기갑병교련은 오전 중에 전체적으로 종료가 되었고...
 점심 식사 후, 흥분도 가시지 않은 사이에 주말의 <특별 컬리큘럼>에 대해서 학생들 전원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파블로 : 으오오오웃, 진짜냐!?
 파블로 : 전용열차에 타서 사자란트 주로 원정이라고!?
 루이제 : 우와~ 왠지 두근두근해지기 시작했네요♥
 타치아나 : 하, 하지만 막 입학한 참인데 어째서 갑자기...
 발레리 : ...뭐 그게 명령이라면 이쪽은 따를 뿐이지만.
 스타크 : 금요일이라는 것은 그다지 준비시간도 없겠군...
 샌디 : 저기, 식재료 등은 현지조달이 가능하려나...?
 프레디 : 후후후, 산의 풍부한 진미들이 꽤나 기대될 법하군...!
 미하일 소령 : ---출발은 금요일 저녁, 그때까지 해야 할 준비를 각 반마다 정해두었다!
 미하일 소령 : 담당교관의 지시에 따라서 준비하고, 휴식을 취할 것--- 이상이다!
 유우나 : 으음, 입학 한지 얼마 안 되서 지방에서의 연습이라니.
 유우나 : 사자란트... 에레보니아 남서의 주였던가?
 알티나 : 네, 여기서라면 열차로 수 시간 정도의 거리네요.
 크루트 : 사자란트인가... (...그리운 걸.)

티타 : (어디보자, 분명 리벨에서 가장 가까운 지방이었던가.)



티타 : (아, 그럴다는 것은...)

애쉬 : (헛... 들은 대로의 행선지인가.)

애쉬 : (가본 적은 없을 터인데... 어쩌면...)

유제 : 후훗...

오렐리아 분교장 : ...

-엘리제에게 화이트 실크를 보냈다! -

-엘리제의 인연 포인트 상승! -

--- 4월 17일 기갑병 교련 종료 ---